

알뜰폰 '0원 요금제' 경쟁 활활... 5G 중간요금제도 첫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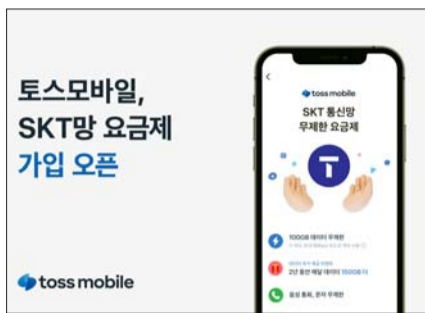
토스모바일 7GB 0원 판매
MNO 3사망 상품 모두 갖춰
코나아이 지역별 요금제 출시
업체 2곳 중간요금제 선봬

알뜰폰 시장 경쟁이 뜨겁다. 알뜰폰 시장의 메인 사업자 중 1곳인 토스모바일이 '0원 요금제' 경쟁에 뛰어드는 등 신규 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도 50GB 이상 5G 중간요금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 코나아이 알뜰폰 시장 신규 진출

토스모바일은 2만4800원인 '데이터 7GB 요금제'를 0원에 내놓고 판매에 들어갔다.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 통화, 문자를 7개월 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다. 다만 룽텁에 볼루선(LTE) 데이터 사용량이 7GB를 넘기면 1Mbps 속도 제한이 발생한다.

토스모바일 관계자는 "0원 요금제는



토스모바일이 SKT망 요금제를 정식 출시했다. /토스모바일

파격가로 간다기보다 알뜰폰 서비스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허들을 낮추는 목적인 것"이라며 "한 번 써보고 서비스가 좋다면 계속 써보라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모바일은 출시 전부터 도매대가 이하로 요금제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잇따라 0원 요금제를 내놓자 결국 토스모바일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0원 요금제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토스모바일 관계자는 "이번에 SKT 요금제를 판매함으로써 3사망 상품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MVNO 사업자 중 MNO 3사망을 모두 연동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코나아이도 알뜰폰 브랜드인 '모나'를 공식 출시하고 알뜰폰 시장에 공식 뛰어 들었다. 코나아이는 지역별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유심 기반 특화 요금제까지 차례로 오픈을 앞두고 있다. 모나는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동일한 데이터 품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코나아이의 지역커뮤니티서비스 경험을 이식한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해 다른 알뜰폰 사업자와는 차별화된 사용자 친화적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결재플랫폼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요금제는 알뜰폰 서비스 이용 시 통신료의 일부 금액을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모나는 240여만 명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인

천사랑상품권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알뜰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알뜰요금제는 5종으로 구성됐으며, 고객들은 어떤 요금제를 써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된다. 또 월 최대 15% 통신비를 인천e음 캐시백으로 제공받는다.

카카오 계열사인 스테이지파이버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고객 확대에 나섰다.

◆ 50GB 이상 중간요금제 속속 선보여

이통사들이 50~12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중간요금제 상품을 알뜰폰 협력사에도 도매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체들이 50GB 이상 중간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LG유플러스 계열사인 미디어로그(U+모바일) 및 CK커뮤스토리(슈가모바일) 등 U+알뜰폰 파트너사에 등록된 알뜰폰 업체 중 이 2곳이 50~125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이들이 출

시한 5G 중간요금제는 50GB, 80GB, 125GB 등 3종이다. U+모바일은 3만 9000원, 4만 1000원, 4만 3500원에 선보였고, 슈가모바일은 4만3000원, 4만 2500원, 4만 7000원으로 가격을 정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알뜰폰 시장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지만, 5G 요금제로는 이통사와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돼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일어날 것이며, 토스 등 알뜰폰 시장 진입으로 주요 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이라며 "0원 요금제는 더 기승을 부리고, 5G 요금제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아직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이통사들의 도매대가 수준이 60%에 그쳐 이통사들과 경쟁은 쉽지 않을 것으로 LTE가 아닌 5G 요금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F&B협동로봇, '두산매치플레이' 출격

두산로보틱스, '로키 푸드타운' 운영
관람객에 먹거리·볼거리 제공

두산로보틱스의 F&B협동로봇이 두산매치플레이 관람객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춘천에 총출동한다.

두산로보틱스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기간동안 식음료(F&B)협동로봇을 활용한 '로키(ROKEY) 푸드타운'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로키는 두산로보틱스의 모든 협동로봇을 지칭하는 마스코트다. 로키 푸드타운에는 ▲라버트-E(치킨) ▲누들로봇(쌀국수, 우동 등) ▲아리스(아이스크림) ▲닥터프레소(커피) ▲BB BEER BOX(생맥주) 등이 배치된다.



두산로보틱스가 17~21일, 춘천 라레나 골프클럽에서 운영하는 '두산로보틱스 로키(ROKEY) 푸드타운' 전경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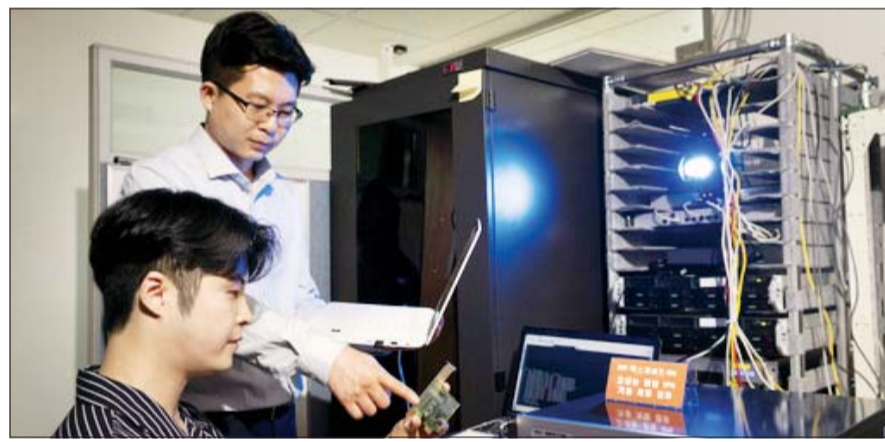
두산로보틱스에 따르면 '라버트-E'는 로보아르테와 협업해 출시한 튀김 솔루션으로 시간당 50개의 튀김 바스켓을 처리할 수 있다. 빠지는 치킨은 약 9분 30초, 순살 치킨은 6분 정도 걸린다. 치킨뿐만 아니라 감자튀김, 떡, 핫도그 등도 튀길 수 있다.

'누들로봇'은 CJ와 함께 만든 누들

조리 솔루션으로 15개 VIPS(빔스) 매장이 도입해 사용중이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우동, 쌀국수 등 10여종의 면요리를 시간당 최대 50그릇 만들 수 있다. '아리스'는 라운지랩과 협업해 출시한 아이스크림 솔루션이다. 고객이 원하는 맛과 모양을 선택하면 협동로봇이 아이스크림을 컵에 담아 고객에게 제공한다. 초콜릿, 바닐라, 딸기 등 10개 이상의 맛과 세 가지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추출할 수 있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두산로보틱스의 모든 F&B 협동로봇 솔루션들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라며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최신 협동로봇의 유용성도 체험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텔레콤은 SK스퀘어 자회사 IDQ, 국내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회사 엑스게이트와 양자암호통신 기반 가상사설망(VPN) 기술 개발에 완료했다. /SKT

SKT, 양자암호통신 기반 VPN 개발 완료

(가상사설망)

엑스게이트 서버 장비에 연동

SK텔레콤이 SK스퀘어 자회사 IDQ, 국내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회사 엑스게이트와 양자암호통신 기반 가상사설망(VPN)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SKT는 엑스게이트의 VPN 서버 장비에 IDQ의 QRNG(양자난수생성기) 칩셋을 연동해 양자암호통신 기반 VPN을 개발했다. 기존 대비 강력한 보안이 가장 큰 장점으로 올해 하반기 상용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VPN은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로 별도 전용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VPN은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암호화 및 해독 과정을 추가해 데이터를 보호하기 때문에 송수신 시 진행되는 암호화 및 해독에 높은 수준의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자암호통신 기반 VPN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적용됐다. 양자 컴퓨팅에 의해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존 암호화 방식에 양자난수생성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엑스게이트의 VPN 장비에 QRNG 칩셋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기존 VPN 이용 시 필요한 장비

외에 별도 추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월사용료도 기존 VPN과 동일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도 높다.

보안 기술은 최근 챗GPT 열풍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갈수록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악성코드 대량 생산 등 가능성이 대두되며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국내 보안시장의 시장 규모는 6조 7195억원으로 2021년 대비 9% 성장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4.8%,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자암호통신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이후 연평균 39.8% 성장해 2030년에는 24조 5793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SK윌더스, 엑스게이트 등과 함께 국방, 공공, 금융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SKT 하민용 CDO는 "VPN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해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활용할 수 있는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춘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SK윌더스, 엑스게이트 등과 협력해 국내 공공, 국방, 금융 등 높은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보안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올해의 디스플레이' 수상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에서 '올해의 디스플레이' 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SID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학회로, '올해의 디스플레이'는 지난해에 출시된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제품에 수여한다. SID가 매년 시상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상(DIA)' 중 가장 권위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다.

SID는 "QD-OLED는 청색 자발광 픽셀 기술과 산화물TFT(Oxide TFT) 기반의 혁신적 구조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확보했다"며 "퀀텀닷은 정밀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나노 크기의 소재로 'QD-OLED'는 이러한 퀀텀닷 구조를 통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실제와 같은 완벽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김재용 기자 juk@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친환경 산단 된다

SK㈜ C&C·한국남부발전 맞선
'신재생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SK㈜ C&C가 한국남부발전과 손잡고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그린산단을 위한 'RE100(Renewable Electricity) 플랫폼' 사업 확장에 나선다.

SK㈜ C&C는 17일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RE100 플랫폼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이 주관하는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일환이다.

한국남부발전은 1999년 산업단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 부산 녹산산업단지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 산단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이번 사업에서 SK㈜ C&C는 산단의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를 위한 'RE100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단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비롯해 전력 사용량 분석, 발전사업자와 공급사업자 간 전력 거래 계약 관리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공급사업자, 입주기업 간 전력 계약·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며 전력 거래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에너지 발전량·공급량·소비량도 실시간 측정·분석·예측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및 사용 효율성도 높여 준다. 에너지 소비 피크 시간대를 예측해 발전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전력 거래 중개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vitna@